

여수시, 삼동지구 미래신성장 산업 연구개발단지 우뚝

지난해 산업지원과에 미래산업팀 신설... 각종 연구개발 지원 연구기관 유치·연구개발 지원에 국비 등 사업비 876억 투입

여수시는 삼동지구에 연구기관 등을 집중화 시켜 미래신성장 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지원과에 미래산업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지역이 없었던 연구기관 유치와 지역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연구개발 지원으로 여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2019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호남본부' 이전을 시작으로, '한국화학연구원 센터'와, '전남테크노파크 센터'를 유치 확정하는 등 여수광양만권 중심 연구개발단지 자리잡아 가고 있다. 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센터', '플랜트 혁신기자재 기술지원센터' 등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CO2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 '석유화학 고도화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분해성 고분자 상용화 사업', '폐플라스틱 자원화 사업', '첨단 소재 상용화 기반 강화 사업' 등에 국비 등 총 사업비 876억 원을 투입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

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석유화학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내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미래 산업의 성장동력을 마련하여 도시성장과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여수=오상호 기자

광양시, 귀농귀촌인 대상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

인구문제 인식개선·은퇴자 활력도시 신중년 시책 홍보 등 강의



광양시가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찾아가는 인구교육'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인구구조 변화를 이해시키고 결혼·출산 및 가족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시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최근 봉강면 농업인교육관에서 귀농·귀촌 교육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기초 영농정착 기술교육 '귀농 귀촌반' 오리엔테이션 행사에서는 교육생에게 광양시 생애주기별 인구시책을 안내하고, 광양 시정을 소개함과 동시에 신중년 정책에 대해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 등 맞춤형 강의를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 특히, 5060 신중년에게 △재취업·창업 △귀농·귀촌 △사회공헌 활동 △평생학습 총 4개 분야로 나눠 수립한 '2021 광양시 은퇴자 활력도시 프로젝트' 시행계획을 토대로 성공적인 인생 2막 영위를 위한 '활력 있는 노후 지원 혜택'을 안내해 교육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조순미 전략정책실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접근해야 하는 만큼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지역 내 기업체·학교·기관들도 인구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양=심정섭 기자

순천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시민들 큰 호응

신청자 전년 대비 47% 큰 폭 증가

순천시가 워드 코로나시대 ICT를 활용한 비대면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2021년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6일까지 전 시민 대상으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모두 441명이 신청했다. 이는 전년 신청자 수 300명보다 47%가 증가된 수치이다. 시는 공식 SNS 등 온·오프라인 접근해야 하는 만큼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역 내 기업체·학교·기관들도 인구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양=심정섭 기자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시는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건강위험요인 평가항목(공복혈당, 혈압,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허리둘레, 비만도 체성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된 시민 350명을 대상으로 오는 4월 5일부터 24주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코디네이터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팀 전략회의를 3월 15일 개최하여, 사업대상자 관리방안, 참여자 미션부리 플랫폼 사업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시민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면역력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ICT를 활용한 보건소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보성군, 구제역 일제접종으로 80년 청정축산 명성 지킨다

다음달 16일까지 한 달간 일제 접종

보성군이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 달간 '2021년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접종 기간에 한우와 젓소 2만5천여 마리를 비롯한 우제류(소, 돼지, 염소, 사슴) 6만여 마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대규모 농장은 가족 소유자가 직접 접종하는 자가 접종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가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 6명이 투입돼 접종을 지원한다. 보성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도 구제역 일제접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

해 관내 주요 장소에 일제접종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읍·면사무소에서는 매일 마을방송 등 일제접종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한, 축협 및 한우협회 등 축산단체들도 SNS나 문자를 통해 회원농가의 일제접종 동참을 독려하며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보성군은 1934년 이래 단 한 번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일 실시하는 수시접종과 1년에 상·하반기로 두 차례에 걸쳐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예방접종과 차단



방역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보성군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발할 틈이 없도록 철통방역체계를 이룩하겠다"면서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접종과 농장 및 축사 소독을 철저히 하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의 명성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고흥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힘 쏟는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유통에 주력



고흥군은 최근 친환경농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와 단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군의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통 방안 등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협의회를 가졌다.

고흥군은 그동안 친환경 농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단지 조성 사업, 인증비 지원, 공동 병해충 방제, 친환경 농투명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농업인구 고령화와 이상 기온으로 인한 각종 병해충 발생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난해 12월 기준 고흥군 친환경 인증 면적은 3,222ha(854농가)로 수도 작 분야 친환경 비율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비 이외의 친환경농업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군은 급년부터 친환경 농산물의 다양화를 위한 과수, 채소 분야에도 행정지원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김택영 기자

책과 함께 즐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